

모빌리티와 비판적 공간연구

Incorporating Mobility Studies to Critical Approaches to Space and Society

정현주*

《공간과 사회》 31권 4호는 최근 인문사회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빌리티 연구를 비판적 공간연구에 접목하는 세 편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빌리티 전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동과 흐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20세기 후반 이후 비판적 공간연구를 촉발한 ‘공간적 전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존 어리와 미미 셸러가 ‘모빌리티 렌즈’를 통해 사회현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론화하려는 ‘새로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을 주창한 이래 다양한 학자들이 이 개념을 탐색하고 확장해 왔다. 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은 인간과 비인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이동에 내재한 실천과 정동, 그로 인한 사회 변화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즉, 모빌리티는 이동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사회-공간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비판적 공간연구의 이론적 자원이자 접근방법으로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 역량의 차이가 개인과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 시대에 새로운 불평등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미미 셸러의 ‘모빌리티 부정의(mobility injustice)’는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와 국가, 지역 간의 공간적 불평등이 생산되고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사람과 사물의 모빌리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그 중요성이 커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jung0072@snu.ac.kr).

진 현대 사회에서 차별적인 모빌리티 역량이 가져온 새로운 공간성과 장소 경험은 비판적 공간연구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학계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에게 공명된 최근의 사건은 바로 팬데믹이 불러온 일련의 현상들일 것이다. 팬데믹 논란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을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의 전파라는 병균의 모빌리티를 밝히려는 시도에서 그 담지자의 신체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촉발했지만, 곧 팬데믹 논란의 대부분은 바이러스 그 자체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불러온 이동과 부동의 시공간적 재편,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의 지역별/계층별/연령별 차별화,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물 이동 시대로의 전환 등 모빌리티 담론으로 넘어갔다.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이동 방식과 이동의 프로토콜이 양산되었고, 이미 진행 중이던 플랫폼도시화 및 물류 변화라는 새로운 사회-공간적 대전환은 더욱 앞당겨지고 드라마틱하게 가시화되었다.

이번 특집호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논문이 팬데믹이 불러온 모빌리티 전환을 다루고 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논문은 사람의 모빌리티를, 세 번째 논문은 사물 모빌리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박준홍·정희선의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계와 모빌리티의 재구조화」는 백신패스로 논란이 한창인 지금, 여론이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적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백신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대한 접근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경계화’ 과정을 백신 취약 지역인 아프리카를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독점적 권력을 쥔 글로벌 제약회사와 국가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백신 민족주의를 통해 백신 보급의 지리적 불균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보담론과 결합한 국가별 허용 백신 지정은 안전과 위협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백신 경쟁은 백신의 보급과 승인에 있어서 명백한 배타적인 지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가장 저조한 아프리카는 보관과 유통에 고도의 기술과 비용이 드는 mRNA 방식의 백신 대신 중국, 인도 등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백신 외교전을

펼친 국가의 백신을 주로 승인하는 등 글로벌 보건 불평등의 희생양이 되었다. 백신 종류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백신 여권 제도에 따라 아프리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는 모빌리티 취약 지역이 되었으며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들은 강제적 부동의 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이 논문은 COVID-19 팬데믹과 백신 보급을 통해 확장된 글로벌 모빌리티 부정의의 사례연구이지만 모빌리티 제약이 경계의 재협상을 통해 끊임 없이 구성되는 지정학적 연구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빌리티와 공간 이론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첫 번째와 반대되는 모빌리티 현상을 다루고 있다. 강다화·고민경의 「교육이주 모빌리티로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은 모빌리티 부정의의 또 다른 극단인, 모빌리티 자본을 많이 가진 계층의 교육 이주가 만들어 낸 경관을 그리고 있다. 국제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초국가적인 장소성을 구축해 가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사례로 한 이 연구는 ‘모빌리티 렌즈’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새로운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동과 정주를 상호구성적인 과정으로 제안하는 저자들은 모빌리티가 극단적인 이동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정주 역시 영구적인 뿌리내림이 아니라고 밝힌다. 이동은 다른 곳으로의 정주를 전제로 하며, 정주하는 공간은 이동해 온 사람들의 적응 결과이자 생존 전략을 담지 한다는 점에서 이동과 정주를 가변적이고 연결되는 과정으로 본다. 이는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해 온 상류층 교육 이주자들이 만들어 낸 공간이 탈맥락적이고 이질적인 장소이며 일시적이며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매개하는 통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즉 이들의 정주는 다른 곳으로의 상향이주를 위한 일시적, 매개적 성격을 지니는 잠정적인 뿌리내림이며 따라서 이주와 정주의 교차 속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이 구성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모빌리티 연구가 이동하는 주체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모빌리티가 만들어내는 장소성을 간과한 반면, 이 논문은 교육 이주라는 모빌리티가 구성하는 장소성에 주목함으로써 모빌리티와 공간 연구의 접합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인 김수철의 「팬데믹과 비판적 로지스틱스 연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위의 두 논문과는 달리 사람의 직접적인 이주가 아닌 사람-사물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로지스틱스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경험 연구가 아닌 시론적인 이론적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물류’라는 번역어 대신 ‘로지스틱스’를 고수하면서 이를 ‘사람들과 사물들의 운송이나 모빌리티, 그리고 배치에 있어서 작동하는 근본적인 규약들과 각 단위들을 명령하는 일과 관련된 지식체계나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람-사물 모빌리티를 관리하는 체계와 제도의 이상블라주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저자는 단순히 사람-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술하는 연구가 아닌 푸코식으로 표현하자면 기술적 장치이자 지식/권력 체계로서 로지스틱스를 이해하는 이른바 비판적 로지스틱스 연구를 지향하면서, 모빌리티 연구를 현대 자본주의 사회-공간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제안한다. 이 논문은 모빌리티에 대한 통제와 조직은 단지 최근 팬데믹이나 현대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쟁 및 군사작전과 같이 권력을 위한 동원에서 긴밀하게 요구되는 기술/지식 체계였음을 계보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로지스틱스는 자본주의 축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팬데믹 시대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각종 물류대란(가령 마스크 대란에 이은 최근의 요소수 대란)이 시사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비판적 로지스틱스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현대 로지스틱스 시스템은 고도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함으로써 주요 행위자들 간의 권력과 정치를 수반하여 저항과 사보타지, 장애를 곳곳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복잡계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 로지스틱스 시스템의 장애는 우리의 일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자본주의 시대의 인류의 취약성(precarity)을 성찰하고, 저항과 연대의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학문적 실천으로서 비판적 로지스틱스 연구를 제시한다.

이상의 세 편의 논문은 모빌리티와 비판적 공간연구의 접점을 탐색하는 다

양한 시도로서, 모빌리티 담론의 계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모빌리티 이론의 정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비판적 공간연구자들 사이에서 모빌리티 담론이 새롭게 조성되고, 전유되고, 확장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첫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더 본다.